

7월의 기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 1. 맥추 감사의 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손을 주시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공수로 보내지 않고 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누구든 심는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2. 세상 사람들, 저희의 거룩한 믿음의 행실을 보고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거룩한 행적을 이어받아 저희 DCEM이 세계선교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데 그 어떠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세계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로가 더욱 보듬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지극한 관계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저희들 주님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이태원내과의원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예수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위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왜 위대합니까? 그 이름 배후에 저 하늘과 땅, 아름다운 꽃과 나무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창조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보존자(保存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잘 보존하지 않으면 쉽게 낡아 집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저 우주를 하루도 변함없이 질서정연하게 보존하시는 그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누가 저 수많은 별들을 질서 있게 보존하며 누가 지구를 자전케 하고 공전케 하며 달로 지구 주위를 돌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계절마다 꽃피고 열매 맺고 낙엽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완성자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3)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에 이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 세계를 완성시키고 심판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창조자의 능력과 보존자의 능력, 그리고 주권자의 능력과 완성자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증으로 주셨습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ul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말레이시아성회>



▲ PGRM 국제회의장을 가득메운 청중



▲ 목회 30주년을 맞는 구네라트남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조용기 목사



▲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더 큰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조용기 목사와 구네라트남 목사 부부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인구수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의 공식 개종과 복음 전도가 금지 돼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인 동말레이시아로 구성 돼 있다. 조용기 목사의 말레이시아 선교는 1979년 12월 최자실 목사와 함께 동남아 지역을 순회할 때 말레이시아에 들러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0년 12월에는 조용기 목사가 페낭에서 성회를 인도했으며, 84년 12월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대부흥성회 및 교역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나흘간 열린 성회에는 연인원 10만 명이 참석,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용기 목사는 이듬해 쿠알라룸푸르에서 또 다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02년 9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GRM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 사역 30주년 기념 예배에 특별강사로 초청받은 '조용기 목사 초청 2002 말레이시아 성회'에 대해

회고해보고자 한다. 본 성회에 특별 강사로 초청된 조용기 목사는 “목회 30주년을 맞는 구네라트남 목사의 목회사역을 축하하고 CIM(Calvary International Ministries)이 세계적인 복음 사역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구네라트남 목사 부부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축복받은 예화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을 예화로 들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구네라트남 목사 부부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구네라트남 목사 부부에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30주년을 맞는 구네라트남 목사 부부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했다. 교인들에게도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질 것을 축

구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의 46년(당시 기준)의 목회 경험을 통해 간증했다. 조 목사는 이러한 불가능은 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과 세계선교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조용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며 이것이 자신의 30주년 기념예배에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이유라고 밝힌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는 1978년 CGI 창립 회원으로 가입했었다. 그 후 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고 구네라트남 목사는 세계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초창기 100명 안팎이던 성도수가 수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에 6개의 지교회를 만들었고 인근에 18개 교회, 케냐와 캐나다, 인도네시아에 4개 교회를 세웠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성경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지배할 뿐 아니라 자기의 주변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상을 보면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절망의 다스림을 받으며 질병의 포로가 되고 가난과 실망과 저주에 짓밟히고 최후에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육체가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처럼 인간은 처참하게 물질 환경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영이 죽음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

그러면 인간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9절)

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인간을 해방시키고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수렁에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불과 유향으로 타는 불 못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사망이란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전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 불행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마귀가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묶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단지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삶에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생명의 성령의 은혜로 싸워서 오중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써 허물과 더러움을 다 버리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참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과 싸움을 할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육의 일을 멸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 영적전쟁 -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체험이며, 좁은 의미에서 영성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영성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은 기독교 영성을 이끌어온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주제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영성훈련 방법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영성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에 근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각기 다른 기도 훈련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 영성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기독교 영성은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고 영적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영적성숙을 위해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과 “살아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4차원의 영성도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훈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성훈련이었다면, 4차원의 영성도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성훈련이다. 4차원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에 그 신학적 혹은 신앙적 바탕을 두고 있다. 4차원의 영적인 원리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4차원의 영적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두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어진 영적 법칙이다. 성경은 3차원의 물질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4차원의 영적세계를 접하게 되고 4차원의 영적세계 안에 존재하는 4차원의 영성을 발견하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4차원, 즉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하

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4차원의 영적인어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생겨난 꿈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큰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기독교 영성과 4차원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영성수련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된 말씀’(레마)으로 순간마다 들려질 때 모든 성도는 3차원의 세계를 이끌어 가는 4차원의 ‘생각’, ‘꿈’, ‘믿음’, ‘말’을 소유할 수 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2024년도 삿포로신학교 신학생 모집 [2년제]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제3기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졸업후 각자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일본 선교를 이끌 지도자, 교회 개척자로 활약 할 길이 제공됩니다. 일본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일본 선교를 향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자
- 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이상 소지자 또는 입학전 동 레벨을 취득할 의지가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전공 무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 국적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제한 : 45세 이하

■ 접수마감일

2023년 7월 31일(월)

■ 전형방법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 또는 화상면접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sapporobible.college.kr)

■ 등록금

180만엔/년 (기숙사, 식사비 일체 포함)

\*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추천하여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입학문의 Tel. 02-6181-6572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Tel. 02-6181-5061 (DCEM)



SAPPORO BIBLE COLLEGE 삿포로신학교 17 Chome-3-11, Minami 8 Jonishi,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

